

고유가 대응 '겨울철 에너지절약 대책' 산자부, 에너지 절약으로 고유가의 난국 이겨내자

「따뜻하게 겨울나기」 대책 회의

2005.10.31.(월) 산업자원부



산자부(장관 이희범)는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동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유가에 대응한 겨울철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유가가 여전히 배럴당 53달러를 호가하는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성수기인 겨울철을 맞아 범국가 차원에서 에너지절약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겨울철 에너지절약 운동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절약실천을 직접 실천토록 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이 하나의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가 발표한 '겨울철 에너지대책'

① 에너지 절약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제고를 위한 절약 활동 전개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13%를 차지하는 난방용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04년 겨울철 실천 운동인「내복입기운동」과 병행하여, 금년에는「난(暖) 2018」캠페인 시작한다.

‘Energy Week’, 에너지산업 순회전시회 및 에너지절약 이동전시회를 통해 에너지 절약 마인드 제고하며, 제27회 ‘에너지절약축진대회’를 개최하여 산업체, 공공부문 등에서 에너지절약 유공자 및 우수자에 대한 정부포상 실시한다. 기술정보협력사업(ESP; Energy Saving thru Partnership)을 통한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전파한다.

② 에너지다소비업종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에너지절약 참여 강화

에너지다소비업종별, 사업자단체 중심으로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에너지절약방안을 자체적으로 발굴·제시(연말까지 25개로 확대)하고, 제조업체에 대해 자사 생산제품에 대한 효율개선 협약 추진하며, 산업 및 가정용 보일러업체와의 ‘제품효율개선 협약식’을 가진다.

③ 공공·민간부문 전체에 대한 에너지절약 실태 점검 및 관리 강화

공공부문은 감사원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660개 기관에 대해 점검 및 민간부문은 3차 자율적 에너지절약 실태점검 실시토록 한다.

④ 중·장기적으로「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05년 하반기 ‘3개년계획’ 실무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위원장: 총리)」에 보고한다.

‘행정복합도시 추진단’ 내에 에너지절약계획수립 TFT를 구성·운영하며, ’05. 하반기 121개 사업장과 자발적협약(V.A) 체결한다.

연간 2천 TOE 이상을 소비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대해 3년 주기로 에너지진단 의무화 추진한다.